

<제 642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광주상생카드 출시 2주년 기념 경품 이벤트 당첨자 경품 증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본점에서 3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한 광주상생카드 출시 2주년 기념 이벤트의 경품 당첨자를 발표하고, 1등과 2등 당첨고객을 초청해 경품 증정식을 가졌다.

광주은행은 705명을 추첨하여 1등 1명에게는 광주상생카드 100만원, 2등 4명에게는 광주상생카드 각 50만원, 3등 700명에게는 1만원 기프트콘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해양에너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자전거 기부



해양에너지(사장 김형순)는 지난 27일 '소통하는 역량캠프'를 시행하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자전거를 기부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기부행사는 직원간의 소통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 지난 6월~7월에 하남혁신지원센터에서 사내 교육 프로그램인 '소통하는 역량캠프'를 진행하면서, 직원간의 소통 노력으로 문제해결을 해가는 과정을 다루기 위해 자전거를 조립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완성한 자전거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색다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자전거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경총 박성수 자문위원장 아침시평_무등일보 7.26일자>

빛고을의 이른 아침학습 문화

아침시평



박성수
전남대 명예교수

강진에 가면 다산선생의 말씀이 적혀 있는 비석이 여럿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유달리 돋보이는 비는 다산선생이 자손들한테 내려 준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근면하게 정진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분은 이 말씀 비에서도 오늘날의 우리에게 "동토기 전에 일어나라"라고 당부하고 계신다.

이처럼 다산선생의 간곡한 바람에 호응하는 모습은 바로 빛고을의 이른 아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침 7시가 가까워지면 꼭두새벽에 일어나 단장하고 강연장으로 걸어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띈다. 이분들이야말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라고 하는 격언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빛고을에서 열리는 포럼은 많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견주어 보았을 때 3개 정도의 조찬포럼을 들 수 있다. 바로 화요일의 광주경제포럼, 수요일의 산학협동포럼, 그리고 금요일의 금요조찬포럼이 아닌가 싶다. 이들 포럼은 모두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하나같이 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학습의 장이라는 점에서

서 의의가 크다.

먼저 광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광주경제포럼 세미나를 보자. 이달로 244회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1997년 7월부터 흑서기, 흑한기를 빼고는 달마다 열리고 있다. 초창기에는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진 중심으로 열리다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경제 경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 CEO는 물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

한편 순수 민간단체인 산업통상자원부 사단법인 한국산학협동연구원(키우리)이 주최하고 있는 산학협동포럼은 2003년 1월부터 시작, 219회까지 매월 어김없이 열리고 있다. 전국에서 모셔온 산업계, 학계의 저명한 인사로부터 열심히 강의를 듣고 질문하는 학습의 장이다. 1사1교수의 산학협동제도로 맺어진 기업인들과 교수들이 함께 손잡고 나와 강의를 듣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동행의 명 장면이라고 할 것이다.

매주 광주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하는 금요 조찬포럼은 어떤가. 일찍이 1990년 6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무려 1천527회의 포럼을 열었다. 처음에는 광주은행이 주도했는데, 지역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강좌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차츰 활발한 참여가 늘면서 현재는 기업인 말고도 일반 시민들까지 함께 하는 노사민정의 공부방으로 확장되었다. 산업 경제경영은 물론 인문, 사회, 노동, 역사, 과학, 문화, 예술 분야까지 다양한 영역의 연사를 초청해 부지런히 면학하고 있음을 보곤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포럼의 경우,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나와 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은 참 보기 좋다. 빛고을에서 뿐만 아니라

인근 담양, 장성, 화순, 나주, 곡성은 물론 멀리 장흥, 강진, 여수에서까지 서둘러 오는 열성과도 보인다. 왜 유명한 대중가수 설운도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유행가가 있지 않던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노래말처럼 아침 포럼은 어김없이 열리고 있다. 빛고을의 이른 아침학습 문화를 보면서, 우리 남도인의 자부심을 생각해본다.

특히 광주경영자총협회의 경우, 2019년 6월 21일, KRI 한국기록원으로 부터 민간경제단체가 주최하는 국내 최장수조찬포럼으로 인정을 받는 인수증서를 수여 받은 바 있다. 이렇게 1천 500회가 넘도록 많은 횟수를 넘기게 된 사연이 궁금할 것이다. 다른 포럼과는 달리 매주 금요일이면 꼬박꼬박 한주도 거르지 않고 포럼을 개최하여 왔다는 점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 여파로 99명까지 참가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전에는 평균 150명 내외의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인기포럼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한다. 해마다 새해 첫 포럼에는 지난한 해 동안 개근한 수강생들을 포상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평생 교육 학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산학협력의 모델을 만들기도 하였다.

지역을 선도하는 리더들의 역량을 키우고 있는 이른 아침포럼의 학습문화! 빛고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더욱 소중한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광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이들 포럼 활성화를 위해 일부나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우리 고장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경쟁력이지 않는가.

사무국 일지 (07.26 ~ 07.30)

07.26(월) *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

07.29(목) * 광역-기초 노사민정협의회 간담회

07.30(금) * 금요조찬포럼 휴강 (코로나19)

1. 노사 동향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2차 전원회의 개최

-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2013년 개최된 근면위에서 ‘향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 한해 재심의 할 수 있다’고 결정해 사실상 논의가 마무리되었으나, 지난 노조법 개정예에 따라 근면위가 고용노동부에서 경사노위로 이관되어 8년만에 근면위 개최
- 지난 1차 전원회의(7. 6)에서 신임 위원장을 선출(조성혜 공익위원)한 가운데 금번 2차 전원회의(7. 27)에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재논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 구성에 합의
 - ※ 실태조사를 위한 실태조사단을 별도 구성 예정
 -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실태조사기구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에 필요한 심의를 위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의 조사·분석 업무를 담당할 실태조사단을 둘 수 있다.
- 한편, 근면위 3차 전원회의는 8. 10 개최될 예정이며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변화와 관련된 기초’에 대해 고용부에서 발제 예정

■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세 속 장외집회를 지속하고 있어 지역사회 불안감 증폭

-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고,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연이어 장외집회 진행
 - 민주노총은 ‘7. 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7. 27)을 개최하고 당시 전국노동자대회 참여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음을 주장하며, 김부겸 국무총리의 사과 촉구
 - ※ 김부겸 국무총리는 7. 17 긴급 입'장문을 통해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밝히고,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

- 또한, 민주노총을 4차 대유행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언론과 일부 정치인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

○ 특히 민주노총은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1인 시위 외에 모든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7. 23)했으며 7. 30에는 1인 시위를 진행 예정

- 원주시는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 강행을 주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7. 26)